

셀트리온, 1.4조 투입 ‘美 관세 대응’… 국내 증설에도 4조

서정진 회장, 온라인 간담회

연내 美 뉴저지 생산공장 인수하고
5년내 6.6만 리터 규모 시설 확보

국내 송도·예산·오창 ‘핵심거점’
2038년 바이오시밀러 41개 목표
내년 ‘비만 치료제’ 전임상 돌입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

셀트리온이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자해 6만6000리터(1) 규모의 미국 생산기지를 확보한다. 국내 생산시설 증설에도 4조원을 투입하며 성장동력을 다진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차세대 경영 전략을 직접 공유했다. 우선 미국 의약품 관세 대응 목적의 미국 공장 추가 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히며 미국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완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현재 미국 뉴저지의 브랜치버그 지역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생

산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체결한 후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안에 인수를 마무리 짓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대 생산량 확장에 바로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약에 따른 공장 인수 대금을 포함해 셀트리온은 초기 운영비 총 7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이후 최소 7000억원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

1차 증설로 3년에 걸쳐 1만1000리터 배양기 3기를 추가하고 2차 증설은 미국 내 제품 수요 상황을 고려해 1만1000리터 배양기 3기를 더한다. 그 결과 향후 5년 내 총 6만6000리터를 확보하게 된다.

서 회장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모두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미국 정부의 약가 인하 압박과 관세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국내 생산시설 추가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인천 송도, 충남 예산, 충북 오창을 핵심 거점으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송도에서는 기존 캠퍼스내 건설중인 액산 완제의약품(DP) 공장에 더해 신규 원료의약품(DS)공장을 마련한다. 예산에서는 신규 완제의약품(DP) 공장을 오창에서는 신규 사전 충전형 주사기(PFS)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시설 증설에만 약 4조원이 투입된다.

주력 성장 동력인 바이오시밀러 연구

도 계속된다. 서 회장은 오는 2038년까지 총 41개의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다음 목표로 설정했다.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7개의 신규 바이오시밀러를 추가 출시해 총 18개로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목표 제품은 키트루다(흑색종), 코센티스(건선), 오크레부스(다발성경화증), 다잘렉스(다발성골수종)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로 현재 상업화 타임라인에 맞춰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다.

신약개발 회사로도 약하기 위한 사업 체질 개선에도 본격 나선다. 항체·약물 접합체(ADC) 및 다중항체 신약의 경우 2025년 임상 단계에 돌입하는 4종을 포함한 총 10종 이상의 파이프라인에서 출발해 2027년에는 임상 단계 10종 이상을 포함한 총 20종의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제품 개발이 이뤄진다.

‘비만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

LP-1)을 포함한 2종·3종 작용제를 넘어 4종 타겟이 동시에 작용하는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서 회장은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은 관련 특허와 동물시험을 마무리짓고 내년에는 허가를 위한 전임상에 돌입할 것이며 최첨단으로 개발하고 있고 점차 경구 제형으로의 제형 변경도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차원이 다른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서 회장은 “올해 3분기 대비 최소 30% 이상 신장된 매출액, 30%대 중반의 매출원가율, 40% 내외 수준의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개선 등 주요 실적 지표에서 모두 압도적인 성장세를 달성할 것”이라며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실적 성장이 매분기 지속되고 실적 성장을 기반 삼아 셀트리온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신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3분기 OLED 모니터 출하량 ‘사상 최대치’

총 64.4만대로 전년비 65% 증가
타이완계 에이수스 점유율 21.9%
삼성 18% 2위 이어 MSI·LG 순서

글로벌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모니터 시장이 고성능 게이밍 수요와 IT용 OLED 투자 확대 흐름을 타고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3분기에 역대 최대 출하량을 기록한데 이어 4분기에도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OLED가 하이엔드 모니터의 주력 규격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OLED 모니터 출하량은 64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하며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전망치도 262만대로 상향 조정되며 성장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게이밍·크리에이터용 제품 중심으로 OLED 채택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별로는 타이완계 에이수스(ASUS)가 ROG 게이밍 시리즈와 프로아트, 휴대형·폴더블 듀얼스크린 등 폭넓은 OLED 라인업을 앞세워 점유율 21.9%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는 18%로 2위, 타이완계 MSI와 LG전자가 뒤를



아수스 OLED 게이밍 모니터. /아수스 홈페이지

이였다.

OLED 확산 배경에는 고해상도·고주사율 수요 증가와 QD-OLED 중심의 고급 패널 공급이 맞물린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패널사들이 대면적 OLED와 IT용 OLED 라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급 주도권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OLED 모니터 출하에서 QD-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약 68%에서 2025년에는 약 7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7인치급 모델에서 QD-OLED 침투율이 같은 기간 약 32%에서 47%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다양한 OLED 제품군을 신속하게 투입한 ASUS가 점유율 1

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글로벌 브랜드들의 제품 전략 차이도 뚜렷해지고 있다. ASUS와 MSI는 하반기 신모델 출시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제품군을 중·고가형 전반으로 넓힌 반면 삼성전자는 연초 플래그십 모델 중심으로 시장을 전개했다가 하반기 들어 신제품 출하를 늘리며 연말 시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는 생산거점 이전 마무리와 함께 45인치 등 신규 OLED 제품군을 본격 투입하며 3분기 출하를 회복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내 업체들의 완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경쟁 및 대응 속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플래그십 중심의 OLED 모니터 전략을 유지하며 SKU(모델 수) 확장이 제한적이었으며 LG전자는 3분기 신제품 투입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2분기 생산거점 이전 영향으로 전반적인 공급·출하가 둔화했다는 평가다. ASUS와 MSI가 중·고가형 OLED 라인업을 빠르게 확장하며 점유율을 끌어올린 모습과는 대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희준 기자 nauta@

구글, 차세대 AI ‘제미나이3’ 공개

출시 첫 날 검색 서비스 전면 도입
“전례없는 수준 깊이·뇌양스 이해”

구글이 19일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3’을 공개하며 검색 서비스 전면 AI를 도입한다는 전략 전환을 선언했다.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는 지난 18일 제미나이3 출시를 발표하며 “전례 없는 수준의 깊이와 뇌양스를 이해

하는 최첨단 추론 능력을 갖춘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구글이 신형 AI 모델을 내놓은 것은 ‘제미나이2.5’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출시 즉시 검색 서비스에 적용한 점이다. 이용자는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입력한 뒤 AI 모드 탭으로 이동해 제미나이3 기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구글은 핵심 매출원인 검색

광고가 잠식될 가능성을 우려해 검색 AI 도입에 신중했지만, 이번 조치는 검색 분야에서도 AI 경쟁에 정면으로 뛰어들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AI 모드는 미국 시장에 우선 적용되며 한국 도입은 이후 순차 진행될 전망이다.

구글은 제미나이3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도구 구글 안티그래비티도 함께 공개했다. 이 도구는 소프트웨어상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대리 처리 기능을 지원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전고체전지 난제 최적화 ‘다층 설계전략’

경상국립대 성재경 교수 연구팀
실리콘 기반 병목정리 연구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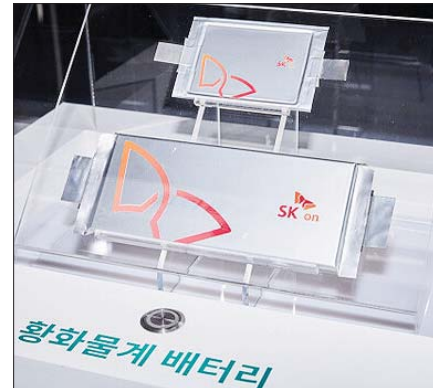
전고체배터리 상용화의 핵심 난제로 꼽혀 온 ‘계면 불안정성’을 겨냥한 연구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전극·전해질 계면을 안정화하는 새로운 설계와 소재 접근법이 속속 제시되면서 병목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부 성재경 교수 연구팀은 지난 17일 실리콘 기반 전고체전지의 병목을 정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실리콘 음극과 황화물계 고체전해질(SE) 사이의 화학 반응, 충·방전 중 이온·전자 이동 불균형, 반복 충전 과정에서 전극 내부 응력 축적을 고출력·고속충전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극·전해질·계면을 함께 최적화하는 ‘다층 설계 전략’을 제안했다. 실리콘 입자 크기 조절, 전해질 조성 재설계, 전하 이동 경로 균형화, 전도성 중간층·집전체 공학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된다.

계면 불안정성은 실리콘만의 문제는 아니다. 리튬금속 음극은 충·방전 과정에서 수지상(가느다란 바늘 형태로 자라나는 리튬 결정)·공극(전극 내부에 형성되는 빈 공간)이 생기며 계면 붕괴가 반복되고, 흑연·실리콘 복합 음극도 팽창으로 전극 구조가 갈라져 수명이 짧아진다. 그럼에도 전고체전지는 고체 전해질 적용으로 무게·두께가 늘어 에너지 밀도가 일부 떨어지기 때문에, 흑연만으로는 주행거리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론용량이 높은 실리콘(약 3600mAh/g)과 리튬금속(약 3800mAh/g) 기반 음극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계면 공학을 통한 새로운 해법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성 교수팀이 최근 공개



‘인터배터리 2025’ 현장에 전시된 SK온의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SK온

한 ‘실리콘·탄소 기반 삼중 적층 중간층’은 리튬금속 전지에서 수지상과 공극 생성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구조다. 상부층은 치밀한 리튬-실리콘 합금으로 전자 누설·계면 분해를 줄이고, 가운데층은 다공성 리튬-실리콘-탄소 나노튜브(CNT) 구조로 리튬이동 통로를 확보했다. 하부층은 CNT 비중을 높여 전류 분포를 균일하게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흑연·실리콘 복합 음극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DGIST·연세대 공동 연구진은 계면 코팅이 아닌 전극 강도 자체를 높이는 방식에 주목했다. 바인더(NBR)와 용매 조합을 바꿔 실리콘 팽창에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바인더가 잘 녹는 아니솔(anisole) 용매를 활용해 전극 기계적 강성을 높인 것이다.

계면 안정화 연구가 진전되고 있으나 상용화를 막는 기술 장벽은 여전히 많다는 지적도 있다. 황화물계 전해질은 공기와 습기에 취약해 별도 설비가 필요하고 고체전해질은 기공률·두께·밀도 등 제조 변수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맞춰야 해 대량생산 난이도가 높다. 제조 공정과 스케일업 문제가 결국 상용화 시점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